

● 외환리포트**전일동향**

전 거래일대비 7.60원 하락한 1,187.40원에 마감

4일 달러-원 환율은 미 경제지표 호조 및 호주 중앙은행의 매파적 금리동결에 따른 신흥국 통화강세에 연동되며 전 거래일 대비 7.60원 하락한 1,187.40원에 마감하였다.

이날 환율은 NDF 시장의 달러-원 1개월물 환율을 반영하여 1,191.60원에 개장하였다. 개장 이후 환율은 미 경제지표 호조를 반영하며 1,190원 초반에서 등락했다. 이후, 호주 중앙은행의 매파적 금리동결에 신흥국 통화가 강세를 보였고 원화도 이에 연동되며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갔다. 환율은 롱 스탑에 따라 1,185.90원 까지 저점을 낮춘 뒤 소폭 반등하여 1,187.40원에서 마감하였다. 시장 평균환율은 1,189.40원에 고시되었다.
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1,091.01원이다.

전일 달러 변동

| 시가 | 고가 | 저가 | 종가 | 평균환율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1191.60 | 1193.80 | 1185.90 | 1187.40 | 1189.40 |

전일 엔화 변동

| 시가 | 고가 | 저가 | 종가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1098.71 | 1099.57 | 1086.26 | 1087.07 |

금일 전망

중국 경기부양책 확대 ... 1,180원 초중반 등락 예상

금일 달러원 환율은 중국의 대규모 유동성 투입 및 금리, 지준율 인하 기대를 반영하며 1,180원 초중반 등락이 예상된다.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0.6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(1,187.40원) 대비 3.35원 하락한 1,183.45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.

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장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확대하고 있다.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이틀 간 약 1조 7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투입한데 이어 대출우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. 금일 환율은 중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시장의 투심회복을 반영하며 하락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.

다만,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수 및 사망자수가 각각 20,000 명, 400명을 돌파함에 따른 바이러스 확산 지속세와 중국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으로 하단은 지지될 것으로 예상된다.

금일 달러/원
예상 범위

1180.75 ~ 1187.75 원

체크포인트

-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4862.79억원
-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.35원 ↓
- 美 다우지수 : 28807.63, +407.82p(+1.44%)
-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90.32 억달러
-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7803 억원

주의사항

※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.

※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